

#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볼 수 있어야

## 19면에서 계속

심력을 얻어서 전체 구성토를 완쾌하고 그 별칭과 더불어 같이 운행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면 바로 그것을 불(佛)이라고 해도 좋고 자유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어떠한 악의 덩어리가, 마음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선 보이지 않는 데 다니면서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있을 때 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바로 내가 된다 말입니다. 업식으로 몸통이 무너져 갔다고 그랬죠? 즉 말하자면 이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스무 개, 백 개, 천 개, 백억으로 돼 가지고선 누구를 살리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살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 가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와 같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걸 참 어떻게 되겠어 애길 헤드려야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생활이 그대로 천체심성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천체물리학을 연구하고 그러자면 이것은 물질로써 연구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옆에 누가 와 있어도 못 보는 걸 어떻게 하니까? 전자의 선배들이 지금 후배가 연구하는 데 와 있어도 몰라. 주옥을 알아있어도 몰라. 그럼 그 노릇은 어렵습니까? 들이 아닌 까닭에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줄이라는 얘깁니다.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를 참,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죠.

옛날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어느 의학 박사가 말입니다. 죽었는데, 참 그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무척 애썼는데 후배들은 도대체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어떤 남자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항상 공부하니까 그냥 그 박사가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남자는 그 박사가 전자에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바로 태어난 줄 알고 아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때문에 타의에서 들어와도 자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타의의 선배가 죽어서 영령으로서 나한테 침입을 했어도 선의적으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만들었죠. 그러나 진짜 공부의 악의적으로 했던 선의적으로 했던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걸 내 결로 삼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인공이다'라는 걸 아주 거기다가 딱 놓고 '이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지' 한다면 그게 자의가 되거든요.

이것을 체험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것이 수많은 악마라도 다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란 한 사람이 많다면 천지가 편안해. 천지가 편안하면 백성이 편안해. 모든 사생(四生)이 다 편안하고, 사람 될 줄이 100% 더 맑게 되고, 그 몸속 인연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됴므로써 불국토를 맞이할 수 있

지 않겠는가? 불국토(佛國土)가 다른 게 불국토입니까? 여러분이 참, 꿰뚫어서 자기를 자기가 먼저 알고 또는 남을 알고 상대를 알고 함으로써 들이 아니게 공존하는 줄 알고 화합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만 가지 향이 나고, 만 가지 꽃이 피게 되고, 만 가지 열매가 맺고, 만 가지 맛을 아니 이것이 불국토다 이거야.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시고 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을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광대무변한 뜻을 그대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바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을 이

“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번 죽을 거  
뉘 또 죽을까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를 쓰니까!”

끌어서 누진(漏盡)으로부터 오신통을 그대로 하는 것만이, 우리 지금도 오신통을 하고 가지만요. 그 오신통도 떠나서 모든 걸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 밖엔 없으니까요.

나를 믿는다고요? 나는 겁잡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믿는다면 나도 거기 참보 되어 있고, 저 부처님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놓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또 거기에 승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생은 부처가 스승이고, 부처는 증생들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평등진리죠. 따지고 본다면 어떠한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일 안 해주면 사장이 어딴 겁니까? 사장이 없으면 직원들도 없고요. 이것은 모두가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서부터 열까지 귀중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 앞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은 발전할 겁니다. 지금 시체말로 이러한 거지, '깨달을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발전할 겁니다' 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내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니 이게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다 여기 와서 나를 꼭 만나야만 하는 줄 아시지만 여기 스님네들한테 '이러이러해서 급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더 한마

음 내 주십시오.' 하고만 가도 됩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하고서 꼭 봐야 하고 여러분한테 꼭 목탁을 쳐서 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아요. 나는 결심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내가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피해나 끼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내려가지도 않고 헛바닥을 깨물고 죽겠다고. 그리고 죽어서 천당엘 가려고 내가 이런다면 아예 살지를 않겠다고요. 그랬더니 살지를 않아도 고만, 살아도 고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얘기해드리죠. 여러분이 죽으면 별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천백억화신으로서 나뉘다 하는 것은, 별의별 게 다 돼서 별의별 이름을 다 가지고 서로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공존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다가 공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여기 스님네들한테 연락하시면 하시라도 빛보다 더 빠르게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천 리라도 좋고 만 리라도 좋고 강이 끼어도 좋고 산이 높아도 좋습니다. 산이 높아서 못 갈 일도 없고, 물이 깊어서 못 갈 일도 없고, 불구덩이라서 못 갈 일도 없고, 죽은 세상이 돼서 못 갈 일도 없고, 누가 못 가게 한다고 못 갈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 질문자(男):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득도한 사람이 죽어서 동물의 몸을 받고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득도했을 때의 높은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물의 의식 수준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스님: 득도한 사람이 왜 동물이 돼요. 또? 득도한 사람은 두 가지 여건이 있어요. 만약에 그 업식으로 잘못 저질러서 동물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득도를 했으면 벌레까지 된단 말입니다.

▶ 질문자(男): 벌레가 됐을 때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스님: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방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와 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면 한 세상이 오대양 육대주처럼 그렇게 장광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오라기 머리카락 같은 그런 거,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집어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지혜롭게 만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해주니까, 그래서 벌레도 건질 수 있는 거죠.

부처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때에 따라서는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되고, 벌레를 건지려면 벌레가 되고, 불쌍한 거지를 도우려면 거지가 되고 이렇게 장광하게 그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잘못해서 벌레가 되는 것과 자

기 위해서 벌레가 되는 건 또 다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깨달아보아야 그 마음을 알기 어떻게 알니까? 그거는 말로는 내가 할 수 없어. 왜냐?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은 뜨거운 찬지를 몰라요. 이 물건을 내가 쥐도 '잡니까, 뜨겁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말은 소용이 없어. 직접 자기가 먹어보아야 이게 뜨거운 찬지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 질문자(男):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까지 그 의식 변천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요?

▶ 스님: 이런 얘길 한번 하죠. 그것도 맛에 불과한 거지만 그 느낌을 제삼자가 얘길 해주려면 말

“  
모든 걸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인공밖에 없습니다!”

을 해야 되겠어요. 또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도 일찌감치 없고 외팔을 혼자 키웠어요. 아주 애지중지 길러서 대학원까지 졸업시켰죠. 이런 현실에 있었던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 사고가 나서 죽었다단 말입니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사십구재(四十九齋) 때도 그냥 몸부림을 치고 울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 스님께서 우리 말을 천도 좀 시켜주세요. 죽어도 어디로 갔는지, 저를 좀 알게..."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날을 두고 그냥 성가시게 구는데 못살겠어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딸이 아무개 집에 태어날 테니까 이다음에 그 어린애를 낳아달라는 수양 손자로 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애지중지하신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죽는다고 하더니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죽질 않고, 이제 재산이 있건만도 뭐 팔러 다니는 최하고 그 집을 자꾸 드나들었던 모양이죠. 그 집을 다니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딸 얼굴하고 똑같아, 똑같아 아주. 점 하나 요기 (목 부근을 짚어 보이시고) 있는 거까지 똑같아. 그래 어머니가 너무 못 잊어 하니까 그렇게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또 그렇게 인도를 했고

요. 겁잡이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지 뭐 귀중한 사람 아니에요. 밀도 셋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친 막대기라는 소리도 들을 만하죠. 부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으로서 참 그 딸이 그렇게 돼 가지고서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수양 손자로 삼아가지고 그 수양 손자한테 재산을 다 그냥 준 거예요. 만날 엮고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전 돌아가시고 없었죠.

▶ 질문자(男): 그러니까 자기가 체득을 하지 못하면 전혀 집착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스님: 그거는 열심히 공부해서요. 그걸 알려면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서도 아니 되니까 여러 가지 다 알려면 벌써년부터 알아야 돼요. 당신이 당년부터 알아야 앞으로의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 질문자(男): 저를 아는 게 중요하네요, 아는 과정을 좀 더 앞당기고 싶어서요...

▶ 스님: 앞당기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세상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데 지금 내가 현실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전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 질문자(男):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마음하고 두뇌하고의 그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스님: 마음이라는 건 통신이에요. 통신! 마음 내는 거는 통신이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내기 이전 마음, 그것은 한마음의 근본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냈다 하면 벌써 여기요. 어디 갈 때 (오른쪽 무릎을 만지시면서) 돌아다 부딪쳤어요. "아이구, 다리 아파!" 이럴 때 벌써 통신이 돼요. 머리로. 내가 이거 "아이구! 아이구! 다리야." 이라고 할 때 벌써 이 머리로 통신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벌써 발끝 손끝까지 다 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통신망이 그렇게 세포를 통해서 다 통신망이죠. 이게 축성이라든 세포 전부가 통신망입니다.

▶ 사회자: 다음은 합장단 보살님들의 선법가 공양이 있겠습니다.

▶ 스님: (합장하시며)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나 봐요. 여러분이 이 뜻을 잘 파악해서 진실하게만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대성공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대성공의 자유인이 될 겁니다. 아미.

※ 위 문은 1988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전통따주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로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옵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
- 학생 포교(교생, 대학생 등)
- 따주기 사회봉사 및 포교
- 전통따주지도사로 활동
- 생활속 비상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 강좌세부 내용

-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원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신비한 비상따주기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5행으로 본 인체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나. 2일차(09:00 ~ 13:00)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작명 비법
  - 수치의 비법
  - 수상 보감, 내 · 외 공합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각 16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 충남청양교육장 : 2008. 1. 12(토) ~ 1. 13(일) (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 40만원(순환도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 부산교육장 (부산평생교육원) : 2008. 1. 26(토) ~ 1. 27(일)
- 35만원(숙식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운동복(슈리닝)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염불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173
- 설 립 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 1리 부락주민대표
- 이 장 : 임재민
- 주 지 : 서평원(정 봉)
- 신도회장 : 김군자

상기 설립자 대표는 귀 종단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염불사(염불암이 아닌)를 귀 종단에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니 이를 부인하지만, 혹 인정 한다 하더라도 주지를 설립자 동의 없이(귀 종단 종헌 제75조 권리의 보장에 위배)임명하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귀 종단의 중지 중풍이 맞지 않아 현 주지스님(정봉)과 염불사 신도회와 합의 하에 귀 종단에서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 12. 17

대한불교 원효종 대표(종정, 총무원장) 법하